

서귀포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초읽기’ ‘미탁’ 복상... 60년만에 최다 태풍

8월 기준 서귀포 미분양주택 744호로 사상 최다 감소세
제주시 내년 3월 해제 전망 속 신규 지정
을 5월부터 역전된 ‘준공후 미분양’ 영향 미친듯

서귀포시지역이 사상 처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주택수는 제주시 479호, 서귀포시 744호 등 1223호로 집계되고 있다. 2개월 연속 서귀포시 지역이 제주시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500호 이하로 감소하면서 30일중에 발표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에서 제외돼 내년 3월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645호였던 7월에 비해 100호 가량인 99호가 증가하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0일 제3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제주시 등 전국 38곳을 선정했다. 제주시의 미분양관리지역 적용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제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 등의 사유로 인해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제주시는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변수가 없는 한 17개월 만에 관리지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제주시는 2017년 12월 미분양이 사상 처음으로 1000호를 넘어선 뒤 이듬해 3월 1012호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900~800호 선을 유지하다

가 올 4월 700호대, 5월에 600호대까지 감소했다. 제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2017년 2월에 기록했던 355호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열풍 등의 영향으로 2016년 12월 11호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 말 269호까지 치솟았다. 증가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300호대를 유지하다가 그해 연말 444호로, 처음 400호대에 올라섰다. 올들어 434호에 시작된 미분양호수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인 500호 이상에 근접한 지난 5월 497호에서 70여호씩 늘며 7월엔 645호에 이르렀다. 마침내 8월에 744호를 기록하게 됐다.

악성물량인 준공후 미분양도 736호에 이르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

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750호 중 서귀포시는 225호에 지나지 않았지만 매월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올 5월 제주시 325호, 서귀포시 405호로 처음으로 서귀포시가 제주시를 추월했다.

미분양주택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인 구유입 증가세가 꺾이면서 공급에 따른 수요 부족 등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불어 올대로 오른 뒤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분양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 및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10월 8일 TF 4차 회의를 갖고, 주택시장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내달 2일 오후 3시 제주 최근접 최대풍속 35% 강도 ‘강’·소형
1959년 이후 첫 7개 태풍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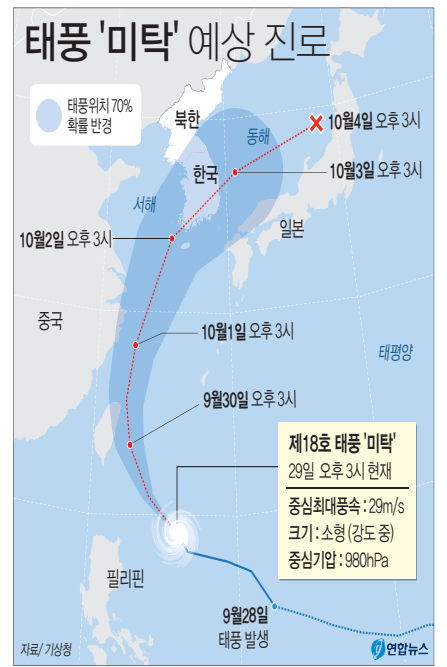
제18호 태풍 ‘미탁’이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내습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미탁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7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80hPa, 최대풍속 초속 29m, 강풍반경 290km 강도 ‘중’의 소형급 세력을 갖고 있다.

이후 태풍 ‘미탁’은 타이완 타이베이를 거쳐 10월 1일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에서 제주 쪽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제주는 10월 2일 오후 3시쯤 태풍과 가장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초속 35m, 강풍반경 290km의 강도 ‘강’으로 성장한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미탁’의 이동속도와 진로, 발달 여부에 따라 10월 1일 이후 예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태풍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만약 태풍 ‘미탁’이 영향을 준다면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강타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태풍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태풍이 지나간 해는 1950년과 1959년 7개다. 6개가 지나간 해도 1914년, 1933년, 1976년에 불과했다.

올해 발생한 17개의 태풍 가운데 제5호 ‘다나스’ (7월), 8호 ‘프란시스코’ (8월), 9호 ‘레기마’ (8월), 10호 ‘크로사’ (8월), 13호 ‘링링’ (9월), 17호 ‘타파’ (9월) 등 6개가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주의 경우 태풍 ‘다나스’와 ‘레기마’ ‘링링’ ‘타파’ 등 4개가 영향을 줬다.

한편 30일과 10월 1일 제주는 제주남쪽먼바다에 위치한 기압골 등의 영향으로 흐리겠다.

송은범기자

극조생감귤 저급품 시장에서 조기 격리 10월 한달간 1만여t 처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극조생 유통기간 동안 극조생 저급품감귤의 철저한 시장격리를 위한 ‘극조생감귤 저급품 조기 농장 격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은 가공용 감귤을 수확하고 계량을 확인 한 후 감귤원에서 자가 격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조금 18억원을 투입해 1만여t의 물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격리 대상 감귤을 20kg 상자인 작업용 컨테이너에 수확해 계량한 후 격리장소에 비치하면 된다.

조합원은 소속 농·감귤으로,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농협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감귤과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물량을 확



젖은 비닐재배로 침수된 농경지 제17호 태풍 ‘타파’가 지나갔지만 비닐재배가 이어지면서 침수피해가 커지고 있다. 28일 내린 비로 서귀포시 성산을 신양리 농경지가 침수돼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18호 태풍 ‘미탁’까지 북상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강희만기자

인하고 포장에서 격리한다. 물량에 따른 사업비는 해당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사업단가는 kg당 180원으로, 20kg상자당 3600원 수준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가공용감귤의 공

장을 통해 전량 가공처리돼야 하지만 국내 과일음료시장 위축에 따라 감귤 가공농축액 재고누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극조생 저급감귤의 조기

시장격리로 시장에 공급되는 감귤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감귤 농축액의 품질향상 및 농축액 판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제 11 회 제주물 세계포럼

The 11th Jeju Water World Forum

2019. 10. 10~11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화산섬의 지하수 보전과 활용

2019. 10. 10 THU Day 1

개회식

기조강연 [JPDC 취수원관리와 사회적 가치실현]

주제발표 [수자원 가치 창출과 사회 공헌]

- 한국의 자연기원 좋은물 발굴 및 가치고도화 연구
- 하와이 주민들의 물보호 : 과거와 오늘
- JPDC - 유네스코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2019. 10. 11 FRI Day 2

주제발표 [글로벌 수자원 보전 · 관리 동향]

- 에비앙의 취수원관리와 연구활동
- 하와이주의 수문지질과 지하수 고도화 연구동향
- 제주도 물수지분석 개선방안 제안
- 하와이주의 물공급 시스템